진실이 오른다 - 밀레 MILLET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741호 1판 (음력 4월 21일) 2014년 5월 19일 월요일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반쪽 5·18’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국가기념일 ‘5·18기념식’ 대통령·피해 당사자·유족 없이 치러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6년째 파행 … 대통령이 해결책 내놔야

대통령도, 5·18 직접피해 당사자도, 유족도 없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강행됐다. 주인공들의 빈 자리는 동원된 사람들로 채워졌다. 심지어 대통령 기념사마저도 없는 말뿐인 국가기념일이었다.

〈관련기사 6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식은 끝내 정부가 줄곧 주창해온 ‘국민 대통합’의 감동은 사라진 채 갈등과 분열의 모습만을 연출했다.

특히 3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은데다 기념사마저 없었다.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대통령도, 국론 분열의 골을 메워줄만한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도 없었다. 국회가 결의안까지 채택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문제도 결국 1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한 채 치러졌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이날 기념식이 ‘5·18 정신으로 국민화합 꽃 피우자’라는 주제로 치러졌음에도 기대됐던 정부의 국민 화합을 위한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5월 역사 왜곡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창의 무산으로 기념식 주요 참석자들인 5월 유공자들도 불참했다. 5월 단체 대표 등 일부만 불참했던 지난해와 달리, 5월 단체 회원 모두가 기념식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공자들의 빈 자리는 동원된 학생, 보훈처 직원 등 관계자, 경찰 등이 메웠다.

여당 지도부가 기념식에 불참하면서 정치권도 반쪽 기념식에 그쳤다. 전날 광주를 방문한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도 불참한 대신 자체 행사를 열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헌화, 분향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 경과보고, 총리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34년 전 이곳 빛고을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함성이 울린 지 한 세대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때의 정신과 열정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가 선진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됐던 것처럼 과감한 혁신과 개혁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연합’ 합창단의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때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오형국 광주시장 직무대행(행정부시장) 등 일부 인사만 자리에서 일어나 제창했을 뿐 정 총리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5월단체 관계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문제로 불거진 5·18의 파행 문제를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임을 위한…’ 전남지사는 일어서고 총리·보훈처장은 앉아있고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식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오형국 광주시장 권한대행 등 일부 인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자, 정홍원 국무총리(앞 줄 오른쪽 첫번째)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앞 줄 오른쪽 두번째) 등이 굳은 표정을 짓고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4일 만에 … 박대통령 오늘 ‘세월호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19일(오늘) 오전 9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담화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째에 이뤄지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을 위로하는 대국민사과와 함께 공무원 채용방식의 변화,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 등 공직사회의 대대적 혁신방안, 국가안전처(가칭) 신설을 통한 국가재난방재시스템의 확립 등에 대한 복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담화가 세월호 정국과 6·4 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 갈림길로 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탑승 476명 구조 172명
실종 18명 사망 286명
※ 세월호 참사 33일째
18일 오후 8시 현재 ▶관련기사 5면

安, 광주서 ‘전략공천’ 민심 달래기

“광주시민 현명한 판단 기대” … 5·18 묘역 등서 姜·李 지지자들에 봉변 당하기도

선택 6·4 지방선거 D-16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17일과 1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전략공천에 대한 민심 달래기에 나서면서 광주시장 선거를 앞둔 향후 지역 민심의 변화가 주목된다.

안 대표는 이틀 동안 전략공천에 대한 상대 후보지지자들과 일부 시민들의 반발과 거친 태도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으며, 일부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는 등 상반된 민심 속에서 ‘새정치에 대한 광주시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김한길 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은 안 대표는 방문 첫날인 17일 광주시당 주최로, 국립 5·18 민주묘역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전략공천에 반발하는 강운태·이용섭 후보측 지지자와 일부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두 대표는 추모탑에 겨우 헌화·분양을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뒤 추도사도 없이 기념식을 마치고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민주묘역을 빠져나왔다.

안 대표는 또 이날 저녁 지역 방송사와 인터뷰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수십명의 항의 대열에 막혀 50여분간 대치하던 중 이들이 차 안으로 던진 계란을 옷에 맞는 등 곤욕을 치렀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이날 오후 금남로를 찾은 두 대표에게 “힘내세요”, “새 정치 잘하세요”라고 응원하기도 했다. 또 함께 사진을 찍자거나 사인을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도 있었다.

안 대표는 이날 저녁 광주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하면서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진 광주 시민께 빚진 마음이었다”며 “어떻게 하면 그 변화의 열망을 지속시키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윤 후보 전략공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미리 충분히 설명드리고, 상의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안 대표는 이틀째에는 서구 상무시민공원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고, 불상사 없이 시민들의 환대를 받기도 했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광주 방문 결과에 대해 “앞으로 계속해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지지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6·4 지방선거 광주·전남 후보 999명 ▶10·11·12·13면
표밭 점검 – 목포 ▶14면 신안·무안 ▶15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